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⑤

한 것이므로 이를 '광명'으로 보인 것이다. 계승을 보자.

"중생에게 지혜 없어서 애정 가시에 찰려 있으니 저들에게 보리를 뒤계 하려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도다. 한 생각에 무량한 세월 두루 살피니 오고 감도 머뭇도 없으니 이처럼 삼세의 일을 통달하면 온갖 방편 뛰어 넘어 열 가지 힘을 갖추고 성불 하리라."

위의 두 계승을 '정량소(淸涼疏)'를 통하여 살펴보자. 첫 계승에서 '애정가시(愛刺)는 보리를 뒤울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중생에게는 고승스런 현실이 오히려 삶을 잘 엮어 나갈 수 있는 기폭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리라. 실제로 태풍이나 지진이 많은 이웃 일본이 더욱 발전하고, 흉수나 가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생겨나고, 종교가 탄생

<화엄경>의 제주품 제1에서 여러 보살들이 예전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선근을 닦아 태어난다고 한다. 또 보현삼매품 제3에서는 "이것은 사방계 불이 함께 가피하신 것이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때문이며 또한 네가 닦은 행원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제7에서는 특히 <화엄경>의 전편에 걸친 중요한 질문이 설해지고 있다. 즉 화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어떤 것이 보살행인가?"라는 등의 29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경문에 말하였다.

"신통을 보이고 나서 동쪽으로 열 개의 불찰미진수세계(佛刹微塵數世界)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하여 금색세계요. 부처님 명호는 부동지(不動智)이며 그 세상에 보살이 있으니

새봄 부처 오심은 성불의 희망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바꾸자

이름은 문수사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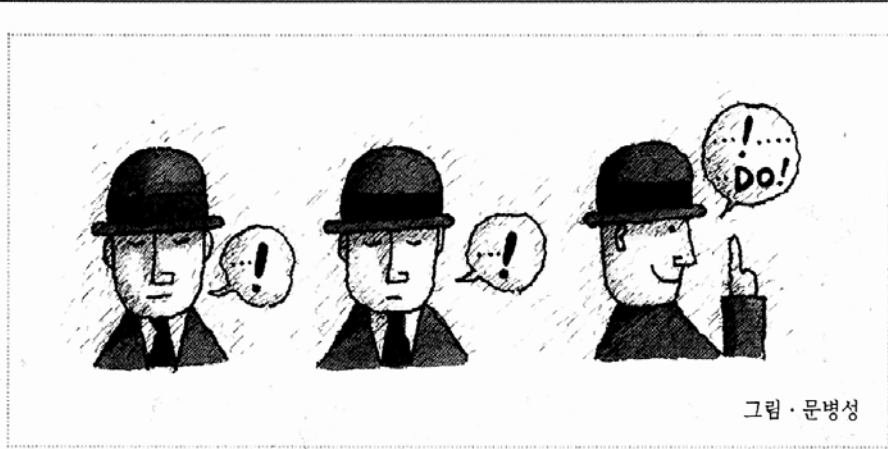
여기서 금색세계는 비로자나께서 상주하시는 법계의 중심인 연화장세계를 말하고, 부동지불과 문수사리 등은 일체중생이 모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本自具足] 근본지이며, 천백억의 화신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더라도 항상 이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不離菩提樹下]는 뜻이 깊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근본지를 상징하는 '지혜제일'의 문수사리와, 후득지(後得智)의 선교방편을 상징하는 '행원제일(行願第一)'의 보현보살로 좌·우보처를 삼는다.

'광명각품(光明覺品)' 제9에서 부처님은 두 발바닥으로 백억의 광명(百億兩足輪放光)을 놓아서 삼천大千세계에 있는 갖가지 차별한 현상을 비춘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추고, 몸의 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따라서 진리와 현상이 함께 어우러진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 대개 '생각으로 짓는 업(意業)'은 헤아릴 수 없이 자제

하지 않았는가? 사바세계에 고통이 없으면 아무도 불교를 믿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려 할 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고통은 오히려 성불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니, 번뇌를 바꾸어 보리로,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바꾸어야 하리라.

화엄은 '꽃으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라 하나, 요즘의 갖가지 꽃이 세상을 장식하는 이런 시절이 아닐까? 또 사찰마다 갖가지 연등과 팔모동으로 거리와 도량을 장엄하고 있다. 화엄에서는 법계를 화장할해(華藏莊嚴海)나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한다. 이런 시절에 부처님은 탄생하신 것이다. 추운 겨울을 배고픈 서민이나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도 그 탄생의 의미가 있었지만, 대지가 새 봄의 희망으로 가득할 때, 모든 중생들이 쇠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다함께 성불의 등, 희망의 등을 밝히자.

■ 불교신문사 편집국 연구원



그림·문병성

깨친 후 실천 없으면 가짜

불교와 과학 <24>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연속적으로 흐른다고 말하고, 눈이 내릴 때 눈송이는 불연속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것은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하나 둘 셀 수가 있지만 연속적인 것은 셀 수가 없다. 수학의 정수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불연속의 단위 수이지만 1/310.3333...처럼 무한소수는 연속의 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로봇 기계는 불연속적인 단위 부품들의 조립물이지만,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내장기관과 뼈마디를 부품으로 갖는 그런 조립된 기계가 아니라 연속의 유기체이다.

진화의 과정이 연속적임은 이미 이야기했다. 단지 진화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연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골드(Stephan Jay Gould)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한 생물종과 다른 생물종 사이의 차이를 다양한 자연 선택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단속평형설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단속평형설은 어떤 생물종은 그것이 종으로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정된 생물학적 평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말이다. 독자는 이 설명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애초부터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어떤 과정이 개입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론이 있다. 그것은 파괴이론(Catastrophical)이다. 이 이론은 개울가 여울에 물러 있던 잔가지 문지들이 어느 순간에 붓을 터지듯 한꺼번에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며, 어느 우연적인 작은 자극에 의해 눈사태가 한꺼번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기술한 하나의 이론이다. 이러한 자연의 사태들은 분명히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무엇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스트레스 역시 외부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연속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다가, 그것이 누적되어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터져 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혹은 불연속적인 증상으로 여겨지는 일종의 질병이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심리 형성의 과정을 단편적 과거 기억들을 소재로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심리 형성의

과정은 연속적인 그 무엇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외부 자극에 대하여 갖는 인상은 사람마다 그 정도와 강도가 다를 것이다. 어떤 아이는 어렸을 적 본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나 어느 배우의 캐릭터가 어른이 되도록 그의 심리 저변에 근저로 놓이는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머리 속에서 기학적 구조를 상상함으로써 갑자기 수학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용어에서 깨달은다는 함은 대부분 깨우침이다. 그런 깨달음은 깨우치고 난 그 이후, 그 깨우침 자체보다는 깨친 대로 실천을 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한 깨우침이라도 이후의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깨침이 아닐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래도 우리는 주변 일상사 속에서 이런 것조차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깨달은 일과 깨달은 후의 일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연속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가짜 깨달음이다.

연속의 깨달음

돌발적 눈사태 불연속 과정 뒤에 후 깨달는 점수 연속적

불교에서는 윤회와 열반이 연속적이라고 지난 연재 가운데서 한번 쓴 적이 있었다. 즉 윤회의 끝이 열반의 시작으로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이다. 윤회의 끝이 열반의 끝이 아니라 열반의 시작이라는 점은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불교의 깨달음의 논의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에는 곤란함이 많다. (첫째) 세간의 언어로 깨달음을 과연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며, (둘째) 아울러 깨달음의 문제를 깨달음에 근저도 못 가본 내가 쓸 자격이 없다는 점과, (셋째) 더불어, 깨달음에 대하여 여러 훌륭한 선승들이 해 놓은 실천언어에 대하여 덧붙여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깨달은 과정은 무엇인가? 돈오인가 아니면 점수인가. 이는 보조조사 이후 깨달음을 찾아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앞서 말한 파괴론에 유비시켜, 깨달음이란 깨닫게 된 개인의 체험의 연속상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오는 그 연속이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일 수 있고, 점수는 그 체험이라는 연속의 끈에서 깨달음의 동아리를 쥘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돈오는 마치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점수는 연속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깨달음 이후의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을 먼저 깨달는 것이 세간인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 최희종/상지대 교수(jchoi@chiak.sangji.ac.kr)

잠자는 검은 대륙 자비의 광명 비춘다

지구촌 불교 / 남아공 사찰불사

건축 기금을 모으고,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찰을 짓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의 불자들이 화제다. 두 나라의 사찰 건립 과정을 조명한 미국의 불교사자 윌리엄 '트라이시' 지에 따르면, 두 나라에서 보여준 보시와 화합의 정신은 법당이 세워지기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본보기라는 것이다.

남아공의 브론즈스피리트에 세워지고 있는 대만계 사찰은 우선 건축 부지만 80여 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2003년 완공될 이 사찰은, 처음에는 1천 400여 명에 달하는 대만계 이민 1·2세대의 원력에서 출발했다. 이후 "사찰 건립을 통해 검은 대륙에 부처님의 광명을 비추고, 이민 사회의 유대와 협력을 꾀하겠다"는 그들의 소망이 본국대만에 알려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모금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모금액은 사찰을 짓는 데 충분한 100여 억 원에 이른다.



남아공에 들어설 대만계 사찰의 임시법당에서 행선하는 아프리카 스님들.

현재 건축 예정지에서는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옆으로 사찰건축준비위원회 사무실과 임시 법당, 박물관 등이 세워졌다.

100억 모금 80만평 부지에 절 건립 개선 주민반발 상생 화합으로 극복

남아공의 대만계 사찰 불사와 같이 국내의 호응을 얻으며 손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캐나다의 피츠버그나 토론토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발과 까다롭기만 한 관할 행정 당국을 설득하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피츠버그의 사찰 건립 과정의 불협화음은 지역 신문인 '피츠버그 포스트' 지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 사찰 불사는 일본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코키 로버트 법사에 의해 시작됐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 당국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당시 주민들은 사찰이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면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의 지가(地價)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데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찰 건립에 우호적이었던 행정 당국은 준공 검사를 계속 연기하는 등 당초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코키 로버트 법사의 꾸준한 설득과 지역 불자들의 캠페인에 힘입어 사찰은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토론토에서도 사찰 건립에 대한 논쟁이 법정의 판결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토론토 스타' 지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오스 불자회는 30여 억 원을 들여 사찰 건립 부지로 카렌톤 지구에 20여 만 평방미터의 농토를 구입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자연 경관과 캐나다 고유의 전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라오스 불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설계도를 수정해 자연 친화적인 사찰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또 사찰에 담긴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반감을 호전시킬 수 있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물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구중구로 (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 (2개월 50만원), 유허원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건강 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종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총 판 법 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